

전북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의 향연

‘썸머 뮤직캠프&콘서트&포럼’, 내달 1~6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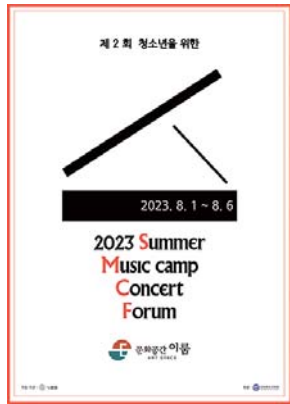
교수진 마스터클래스 · 1:1 집중 레슨 ·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 다채

오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라북도 청소년들을 위한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썸머 뮤직캠프&콘서트&포럼'이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윤정)의 주관으로 전주 문화공간이룸에서 6일 동안 열린다.

이 행사는 음악을 사랑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획된 특별한 행사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썸머 뮤직캠프&콘서트&포럼은 훌륭한 교수진들의 마스터클래스, 1:1 집중 레슨, 멘토링 시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자신만의 음악적 스킬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피아니스트 박상욱 초청 마스터클래스와 콘서트이다. 피아니스트 박상욱은 훌륭한 연주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그의 특별한 연주를 직접 감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참가자들은 박상욱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삶과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피아노 연습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슬럼프 극복기 등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또 이번 행사에서 교수들이 직접 알려주는 너만 알려줄게-비밀병기 가 마련돼 있으며, 이는 참가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비밀팁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음악적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 초청된 교수들은 박규연(국립국산대학교 음악과 교수·자율전공학부장), 신사임(한국음악협회 화성시지부 회장, 삼호뮤직 음악연구소 소장), 이윤정(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대학원 졸업,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군산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 음악교육전문 전북지사장), 이영신(독일 테트르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숙명여대 연주 박사(DMA)학위 취득), 김재명(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만점수석졸업, 움베르토 조르디노 국제콩쿨의 다수 수상, 전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썸머 뮤직캠프&콘서트&포럼 포스터

주시 예술상, 전북예술상 대상, 현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이다. 이중 신사임 교수는 8월 4일 콩쿠르 대상을 위한 즉흥적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8월 5일 피아노 바디맨의 필요성 및 적용을 강의한다. 이 행사는 청소년(비장애인, 장애인·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음악 전문가들의 포럼을 열어, 발표의 장(연주회)을 마련해 잠재적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예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음악 전문가들과의 포럼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 대학 및 직업의 진로까지의 지속적인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지인을 초청 캠프 기간동안 향상된 실력을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협주 등을 통해 협동심 강화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캠프 참가자를 일부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북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선정해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사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 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에게 캠프를 통한 멘토-멘티를 통해 예술에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의 눈에 보이는 성장을 기대하고, 교수진과의 1:1 집중레슨과 캠프 활동 등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멀리까지 가지 않고서도 전주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더욱 고취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교수진, 학부모, 외부 전문가들과의 포럼을 통해 전북 지역 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봄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공동 관심사 담긴 과정과 참여자 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협동심, 배려심을 길러주며 개인인의 성장과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한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소중한 인연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음악 이외의 성장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사단법인 더문화와 지역문화 관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크 연계 및 협력으로 지역문화의 예비적 실천적 경험 실현과 상생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 및 발휘할 기회와 다양한 콘서트와 체험활동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재변화대의 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잠재적 재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단법인 더문화의 문화예술 활동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 교류의 장 역할에 기여한다.

이윤정 사단법인 더문화 이사장은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썸머 뮤직캠프&콘서트&포럼을 통해 전북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제공받고, 음악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지원하고 전북 지역의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일 전주MBC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화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맞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MBC와 협약... JUMF 연계 관광객 유치 확대 협력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일 전주MBC(대표이사 김관광)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MBC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특화자원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2023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연계 관광객 유치 확대 공동 협력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8년째를 맞은 'JUMF 2023'은 올해도 오마이걸, 드림캐쳐, 발라, 널, 크라이닉, 자우림, 10CM, 비아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재단은 오는 8월 11~13일 3일간 개최되

는 'JUMF 2023' 기간 동안 전주역과 전복소핑 트래블라운지(객사), 풍남문(전주한옥마을), 전주종합경기장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또한 전주 원도심을 찾은 여행객에게 관광안내, 컨시어지 서비스, 포토존(이벤트존), 관광 기념품·굿즈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JUMF 2023을 즐기러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재단은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전주MBC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헨젤과 그레텔' 각색작, 천상의 하모니로

합창 뮤지컬 '신비한 마카롱' 21~2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립소년합창단(지휘자 김종희)은 제2회 정기연주회가 뮤지컬 '신비한 마카롱'을 오는 7월 21일과 2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합창 뮤지컬 '신비한 마카롱' 포스터

뮤지컬 '신비한 마카롱'은 세계 명작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각색한 작품으로, 이번 작품에서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은 물

론 안무와 연기까지 접목한 합창 뮤지컬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 대표 합창뮤지컬 전문가인 김성강 감독의 연출과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배출한 뮤지컬 배우 임찬혁씨의 특별출연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으며,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사전예약제(선착순)로 진행됐던 공연 예약도 3일만에 전화차 매진됐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티켓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배부되어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공연장 입장이 가능하나 공연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회 섬진강영화제 출품작 공모... 내달 4일까지

순창군이 '제2회 섬진강영화제'의 출품작을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섬진강 영화제는 영화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한 시간(our happy time)' 주제로 9월 14일부터 16일

까지 3일간 열린다.

군은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국장편경쟁-류(流) 부문' 공모작을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개막사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작은 순창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강, 자연, 사람 등을 소재한 작품으로, 작년 1월 이후 완성된 80분 이상 극영화에 한해 출품할 수 있으며,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옴니버스 등의 형식으로 한 작품은 제외된다.

작품 출품 신청은 섬진강영화제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rff1007>)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심사용 영상 스크린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26일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인 걷기 열풍을 불러온 도보 답사전문가 신정일 문화사회자가 출연해 길 위의 인문학'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는 도보답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

아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10대 강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옛길과 산을 도보로 답사한 이야기, 길을 걸으며 만난 사람들과의 일화 등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누게 된다.

우리 음악 즐기기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가야금병창과 다양한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기악중주 등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